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호세아**

# 거기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호세아 8:1 - 14)

원로목사 **이종윤**

하나님은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배도 주시고, 무엇보다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은혜는 끝이 났습니다. 이가봇이 된 것입니다.

### 1. 이스라엘에 임한 형벌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1절).

이스라엘은 타작마당에서 얻은 곡식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지 않고 음행, 곧 우상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결국 앗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 어려움을 당했고, 모든 것을 상실하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목숨은 스스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주시기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근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우리가 아무리 움켜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제일 행복한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5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명절이 되어도 예배할 처소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섬길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섬길 만할 때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게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3:9).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심판이 임합니다. 그때는 기쁨과 모든 은혜가 지나가고 끝이 나는 날입니다.

### 2. 선지자의 타락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7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선지자가 어리석어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에 감동한 자는 미친 자 취급을 받게 되니 말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끊어지는 것은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

되 아무런 감동도 없고 깨닫는 바가 없다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높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찢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6절).

높은 애굽의 모든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애굽의 우상숭배는 전부 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과 더불어 우상을 찾아가지만 결국은 다 같이 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공평하게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 3. 끊어진 기도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 이까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14절).

이스라엘은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 오히려 저주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는 기도를 하며 심판을 재촉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엘리아가 갈멜산에 올라가 비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아는 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참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 4.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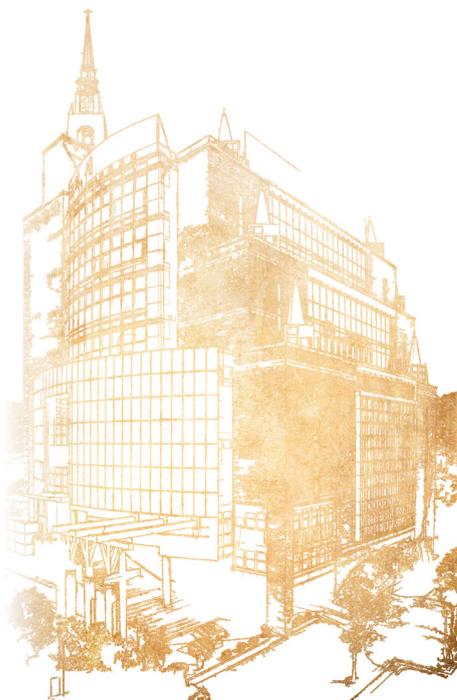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첫 번째 유월절 예배를 드린 곳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런 길갈이 이제는 우상인 바알신을 섬기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저주받은 인간이 될 뿐입니다.

예수그리스도에 의해 새 언약이 주어지기까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말라기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며 그를 통해서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교회학교 교사 모집

교육 1, 2국에서 교회학교(영아부, 유초등부, 중 고등부) 교사를 모집한다. 우리교회 3대 목표 중의 하나는 '천국시민 양성'이며 이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다. 귀한 생명의 성장을 위해 교사로 섬길 성도들은 사무국이나 초등부 부장(김혜연집사, 010-3923-9913)에게 연락주시 바란다.



# 4월 세례식 거행

4월 세례식이 4월 5일(수요일) 저녁 7시에 있을 예정이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는 3월 26일까지 문답 청원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세례식 거행을 위해 4월 5일 저녁 수요 예배에 참석해주시 바란다.

※ 문의사항 임승한 집사(010-7743-3223)

# 3사단 진중세례식

우리교회 비전2020본부(본부장 : 최광성 장로) 주관 3사단 진중세례식이 3월 18일(토) 거행된다. 교회에서 오전 9시 출발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 -교회 사랑-

많은 사람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예배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내 청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장실 뒷정리와 식사 후 뒷정리, 물과 전기 절약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장로교, 정체성을 말하다

# 바른 질서 위한 수단 「권징·치리」 I

## - 권징, 거룩함 지켜내는 도구 -



최윤배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 조직신학)

###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한 권징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는 '경제'에 이어 '정치' 분야라고 한다. 일반 사회와 국가라는 '세상(세속)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은 때로는 실망해 부정적으로, 때로는 기대감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기독교 회사에서 일부 기독교 종파는 정부나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對敵)하는 것으로 이해해 정부나 국가를 완전히 무시했다. 장로교회는 정부나 국가를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질서의 영역으로 이해해,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부나 국가에 대해 협조적이면서도, 때로는 악한 정부나 국가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취했다. 국어사전은 '정치(政治)'를 '국가의 주권자가 그 영토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기독교 및 교회와 관련된 '교회 정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가? 항간에 '그 목사는 지극히 정치적이다'라든지, '그 장로는 지극히 정치적이다'라는 말 속에 '교회 정치'가 매우 부정적으로 이해된 나머지 정치에 관심하거나 정치에 관련된 목회자나 성도는 '지극히 세속주의적이며, 거룩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장로교회 입장에서 과연 '교회 정치'는 이처럼 부정적으로만 이해돼야 하는가? 세상 정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론들이 있듯이 교회 정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 장로교회의 정치에 대

해 살펴보기 전, 먼저 교회 정치에 대한 몇 가지 견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17세기 중엽 영국의 웨이커교도(Quakers)는 모든 교회 정치를 원리상 거부했다. 그들에 의하면, 모든 외형적인 교회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부패하여 기독교 정신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며, 교회의 외형적 정치제도는 신적 측면을 희생시키고, 인간적 요소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에라투스(Eratus, 1524~1583)를 따르는 에라투스주의자들은 교회는 국가가 제정한 법규에 따라 존재하며, 형성된 일종의 사회로 간주한다. 교회의 직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인데, 정부나 국가의 지도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제외하고는 그들에게 다스릴 권한이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교회를 치리하고, 권징을 시행하고, 심지어 파문(破門)을 선고하는 것도 국가에 위임된 기능이다. 교회의 견책은 그 시행이 교회의 합법적인 직원들에게 위임된 경우라 할지라도 국가나 정부가 주는 형벌이다. 셋째, 감독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고위 성직자들 또는 감독들에게 위임하셨으며, 이 감독들은 구별되고, 독립적이며, 무제한으로 계속할 수 있는 성직으로 만드셨다고 말한다. 이 교회 정치제도에선 신자들의 공동체는 교회 정치에 절대로 참여하지 못한다.

교회사에서는 초기에 로마(천주)교회가 이 같은 정치 제도를 채택했다. 영국에서는 이 같은 정치 제도가 에라투스주의 정치제도와 결합되어 나타났다. 넷째, 로마(천주)교회의 교황정치제도는 감독제도의 논리적 귀결이다. 로마(천주)교회의 제도는 자신들의 교회 안에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특별히 사도들 가운데서도 수위를 차지하는 베드로의 후계자가 자신들 안에 있

음을 강조한다. 그들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후계자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대리자가 되는 셈이다. 이 교황 밑에 성직자들이 계층구조적인 질서를 통해 서열화돼 있다. 신자들은 교회 정치에 대해 발언권이 거의 전무하다. 다섯째, 회중과 또는 회중교회제도는 소위 독립교회의 제도로 부를 수 있다. 이 제도에 의하면, 교회 또는 회중은 독립된 완전한 교회이다. 이 같은 교회에서 교회의 치리권은 독점적으로 자신들의 일을 규정할 수 있는 교회의 회원들에게 있다. 직원들은 단지 지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의 제반사를 관리하도록 임명되었을 뿐, 교회의 회원으로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다스릴 권한이 전혀 없다. 필요할 경우,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교회 회의나 지회나 지방회(地方會)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이 연합체의 결정 사항은 권고적이거나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교회에 법적인(교회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정치제도는 대체로 두 가지 방향에서 발전했다. 국가교회를 형성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서는 국가의 통수권자가 교회의 수장의 역할을 했고, 정교분리(政 分離)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독립한 자유(自由) 개혁교회와 자유 장로교회에서는 교회 자체가 독립적인 교회정치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교회 정치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합법적인 질서, 곧 '하나님의 질서(the order of God: ordo Dei)'에 속한다. 우리 교단은 정교분리 원칙에 입각해, 자유 장로교회에 속한다. 또 두 장로설에 기초해 목사(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자)와 장로(치리만 하는 자)로 구성되는 당회, 노회, 총회라는 치리회(治理會)를 가지고 있다.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치리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다음주 계속)



소망부개강

#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손태현 집사 (소망부 부장)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오늘 어르신들이 기다리신 소망부가 개강을 합니다. 교회는 유독 춥고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동토(凍土)의 돌계단에서 신음하듯 앉아 계신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믿음의 계대, 삼대가 같이 출석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던 교회에서 주일 마다 문을 흔들며 대고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고 서울교회 역사의 산 증인이신 소망부 어르신들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어르신들마저 편을 가르게 하고 돌성경 앞에서 시위하듯 집회를 가지는 이들을 보며 저는 「제오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 제팔은, 도둑질하지 마라. 제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십은, 탐내지말라」 돌성경 십계명 밑에 청테이프로 밑줄을 쳐 놓은 적이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돌성경 앞에 서지 않고

감히 십계명 앞에서 거짓광고와 자칭 성명서 발표 등 예배라는 이름으로 불법집회를 가지는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자라온 세대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함이 전도의 첫걸음임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부모 모시는데 싫어할 자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라나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만큼 어르신을 모시는 것 또한 힘써야 될 사역입니다. 소망부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힘들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통찰력과 사랑을 믿습니다. 뜻밖에 닥친 고난이 아프면 아플수록 그 열매가 주는 기쁨이 더욱 클 것입니다.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의 묵상

# 어찌 하오리까!

노문환 장로 (12교구)

하나님 아버지,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빠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과  
부드러운 음성을 고대하며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무엇으로 감당하오리까!  
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크게 소리 높여 드립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가신 길을 바라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채찍을 맞으시며 가신  
그 길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에도 내가 도무지 부인되지 않는  
고난보다는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어찌 하오리까

주님,  
이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만 따르렵니다  
주님,  
이 고난을 극복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국시민양성

# 초등학교 새내기가 된 우성아!



오선혜 집사 (1교구)

지난 3월 2일, 우리 집 막내 우성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닌 지 벌써 한주나 지났구나. 초등학교 입학식만 세 번째인 엄마도 새삼 또 새롭고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우리 우성이는 엄마보다 더 씩씩하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아 쾌걸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유치원보다 방향도 길고 학교 시간도 빠를 것 같았던 형, 누나의 초등학교 생활을 보며 오랜 시간 동경해 온 탓일지도 모르지만 갑자기 늘어난 반 친구들과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하는 환경에서 우리 우성이가 더 멋지게 성장해 가리라 기대해 본다. 또 지금은 아직 학교생활이 마냥 좋고 재밌기만 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성이와 잘 맞지 않는 친구도 만날 수 있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날도 있겠지만 우성이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헤쳐가리라 믿고 또 기도한다.

우성아, 형아 누나가 들으면 섭섭해 할 지도 모르지만 사실 엄마는 우성이를 가지기 전부터 세 자녀 중 가장 많은 기도를 하고 너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단다. 하지만 너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낯은 아들이라 키우기도 더 쉬울 줄 알았던 엄마의 말도 안 되는 꿈에서 일찍이 깨어나게 했고 깨신 우성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더 많이 깨닫게 해주었지. 아무리 같은 뱃속에서 나왔고 같은 부모가 키우더라도 모든 아이가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한명한명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너희들이 자란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깨달았단다. 그래서 너와 형 누나를 위해 더 기도하고 너희를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 두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려고 한단다.

더 어려서부터 친구들과 대화하며 언제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얘기했던 우리 우성아. 우성이가 초등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매사에 모범이 되어 우성이의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퍼져 나가길 기도한다. 그래서 친구들이 네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하길 기도한다. 또 초등학교 생활을 통해 우성이가 꿈을 꾸고 또 그 크고 작은 꿈들을 이루어 나가길 응원한다.

우성아 사랑해~



# 호산나대학 제 12회 입학식 열려

호산나대학 제12회 입학식이 3월 3일(금) 본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입학식은 신입생 38명을 비롯해 내빈과 학부모 그리고 재학생을 포함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예배는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을 통해 성인으로

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입생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2부는 입학허가 선언, 축사, 환영사, 격려사, 교수소개 및 축하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이번 입학식은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그 의미가 크다. 김금순 가평군의회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평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훌륭한 학교가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호산나대학을 가평군수를 비롯하여 관내 많은 분들께 이곳을 알리 수 있도록 홍보전도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0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하신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강명원 총재는 “지역사회에서 호산나대학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



에 중단 없이 꿈을 이루기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동귀 부학장은 “호산나대학을 믿고 학생들을 맡겨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신입생들이 자립하여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 곳에서 경험하는 3년의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산나대학 입학식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첫 단추의 역할을 할 것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겠다.”고 마음을 표현했다.

이번 입학식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주어졌다. 학교장학금, 법인장학금, 부모회장학금, 국제라이온스협회 장학금 총 25명의 학생들이 학업



순례자 편집부에서 정교인을 대상으로 사순절, 종려주일시, 부활절에 해당하는 동시, 시, 수필, 신앙간증을 공모합니다. 모집 마감은 4월 10일까지이며 순례자 편집부나 yoolulu@hanmail.net로 보내시면 됩니다.

당선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Bus Metro Walking**

**운동에 동참합시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3월18일(토) 한국장로교신학회, 복음주의역사신학회, 한국교회사학회 공동주최 신학회 시간에 축도를 하고 올해의 신학자상을 수여한다.

■ 지난 주 식사 및 간식 찬조 : 박정순 한은미 김수호 황선희 조정옥 조숙자 이영희 황재연 정미연 박진희 이계홍 오정수 홍승전 이준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호산나대학에 장학금 1,000만원 전달

지난 3월 3일(금) 제 12회 호산나대학 입학식에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총재 강명영)에서 호산나대학 학생 10명에게 각 10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을 직접 전달한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강명영 총재는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당당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호산나대학에 감사드리며 우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가 발달장애학생의 취업의지가 높고 학업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가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어 영광이다.”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이온스협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며 기쁨을 전했다.

행사 후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강명영 총재는 “오늘 입학식에 많은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 라이온스 차원에서 호산나대학과 봉사활동이나 장학금지급 확대, 학생들 실습이나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비스학과 3학년 최연주 학생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습니다. 이번 장학금 지원이 저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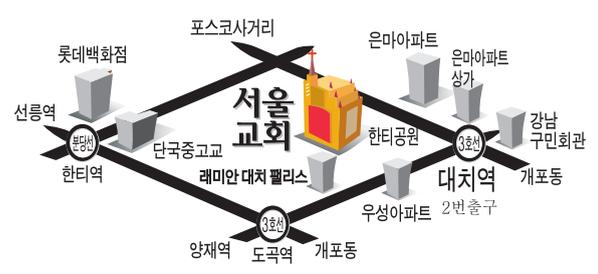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순절을 통해 우리 모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2.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회복 될 수 있도록
3.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4. 3월 18일(토)에 있을 3사단 진중세례식을 통해 민족복음화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웨스트민스터 홀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